

가서 보이는 따위의 계단식 衣紋이라던가 좁아지는 어깨등은 硬化되는 身體와 더불어 보다 後代인 九세기 중엽으로 가면 하나의 定型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八六五年作인 寶林寺毘盧舍那佛像은 긴장된 얼굴과 축늘어진 技法——平行密集衣紋이 아닌 凸形の 혼란된衣紋은 技法上的 차이지만——을 빼고는 이 점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桐華寺佛이나 德美佛등은 定型화된 樣式을 代表한다. 이것이 더 진전되어 八六四年作인 到彼岸寺毘盧舍那佛로 넘어가면 얼굴이나 上體의 차리에서 人間美를 느끼는 外에는 무딘 手法을 어디에나 사용하여 아름다운 굴곡도 理想化的 흔적도 훨씬 감퇴하고 만다. 佛國寺毘盧舍那佛과 불과 一세기의 差밖에 안되지만 정말 격세의 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x x x

八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九세기에는 代表的인 彫刻으로 成長한 이 金剛界摩訶毘盧舍那佛像은 彫刻史的으로나 宗教史 더 나아가서 全般의인 九세기 歷史에 중요한 意味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하던 九세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實證的인 資料이며 흥미하던 行動的인 密敎세력의 상징이다. 특히 손을 맞잡아 가슴에 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좁아드는 어깨와 웅크린 듯한 姿勢의 刻法은 平行階段式衣紋과 더불어 당시의 彫刻界는 말할 必要도 없이 後代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깊이 注目해야 할 것이다.

「水原陵行圖」에 대하여

李 洪 烈

現在 德壽宮美術館에는 彩色畵로 된 簇子式 大型(一五四×六七cm)「水原陵行圖」八幅이 傳하고 있다. 이것은 昌慶苑所藏의 八幅屏風「莊祖陵行圖」와 同一한 內容으로서 그 製作年代와 作者는 勿論, 製作의 動機와

第九卷 第六號 通卷九十五號

意義도 전혀 解明되어 있지 않다.

이 水原陵行圖 八幅은 이미 一九六三年 가을 처음으로 一般에게 公開되었으며 昨年 가을에도 그中 二幅만이 再展示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如前히 많은 疑問點을 內包한채 今日에 이르르고 있다. 그리하여 各 畫幅의 標題에는 誤謬가 있을뿐만 아니라 全幅에 對한 基本的인 理解조차 되어 있지 않다.

筆者는 本發表論文에서 이와 關聯되는 다른 그림 및 文獻에 依하여 考證·比較·檢討함으로써 「水原陵行圖」八幅은 바로 正祖 一九年(一七九五) 莊獻世子內외의 誕辰一周甲을 맞이하여 正祖가 親히 慈宮 惠慶宮 洪氏를 모시고 父君의 墓所인 顯隆園에 行幸하였다가 돌아오기까지 前後 八日間에 걸친 主要行幸의 場面을 描寫한, 뜻 깊은 紀念畵幅임을 論證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 그림을 통하여 儒敎를 國家社會의 指導原理로 삼아 온 朝鮮歷代 專制君主의 權威主義的인 形式性의 制度的側面을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附記:

A, 參考畵幅

- 一、水原陵行圖 八幅
- 二、莊祖陵行圖 八幅
- 三、水原行幸班次圖
- 四、景福宮勤政殿進饌圖
- 五、德壽宮仁政殿進饌圖
- 六、奉壽堂進饌圖
- 八、謁聖試恩榮宴圖
- 八、壬午司馬榜會之圖
- 九、洛南軒放榜圖
- 一〇、" 養老宴圖

(以下 省略)

B, 參考文獻

- 一、世宗實錄 卷一三三

- 二、明宗 " " 三〇
- 三、肅宗 " " 一一
- 四、英宗實錄 卷九九
- 五、正宗 " " 二八~四五
- 六、純祖 " " 二四
- 七、園幸乙卯整理儀軌 卷首
- 八、思悼世子禮葬都監儀軌 第一冊
- 九、莊獻世子上諭封園都監儀軌 第一冊
- 一〇、永祐園遷奉都監儀軌 第一冊
- 一一、志喜殿載軸 全卷
- 一二、御製樂章 全卷

(以下省略)

考古美術

卅一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十次會議

五月三十一日 下午二時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李弘植 第一分科委員長 司會로
 開催, 出席委員은 金庠基 李弘植 金允基 鄭寅國 襄源 金元龍 秦弘燮 崔淳雨 委員
 이었으며 附議案件은 다음과 같다.

- 史蹟一五五號 牙山李忠武公遺墟顯忠祠聖域化事業實施——可決
- 寶物一〇五號 瑞山普願寺 法印國師寶乘塔復原重修——可決
- 寶物一〇四號 瑞山普願寺址五層石塔解體重修——可決
- 科學技術處가 實施하는 瞻星臺空地斷面調査 및 石窟庵內 石質擴大撮影——可決
- ◎寶物第一〇五號 瑞山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盜掘倒壞

瑞山郡 雲山面 普願寺址에 있는 法印國師寶乘塔이 五月 十八日 夜半에 盜掘者
 에 의해 倒壞破損되었다. 倒壞된 全浮屠에는 舍利裝置가 없었으므로 舍利裝置의

盜失은 免하였다.

◎寶物第一〇四號 瑞山普願寺址五層石塔解體重修
 寶物第一〇五號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復原重修

五月十八日 盜掘者에 의해 破損倒壞된 瑞山普願寺 法印國師塔碑와 舍利址에 있
 는 五層石塔은 文化財管理局에 依해서 六月一日부터 六月五日까지 사이에 復原
 및 解體重修施工되었다. 法印國師塔碑의 舍利裝置가 基壇下에 藏置되어 있을 것
 으로 豫想되었으나 發見하지 못했으며 五層石塔에서는 第五層屋身石과 第四層屋
 蓋石에서 舍利裝置를 發見했고 基壇積石에서 小形塔塔若干 및 木塔殘骸가 發見
 되었다. 同塔內의 舍利裝置 內容은 現地에서 秦弘燮, 崔淳雨 兩文化財委員에 依
 하여 封印해서 保管中이며 追後에 內容이 調査된 것이라 한다.

◎韓國大學博物館協會年例總會

同協會는 지난 五月 十五日부터 十八日까지 韓國大學校博物館에서 第六回聯合
 展示會를 열었으며 最終日인 十八日에는 同校에서 年例總會를 갖었다. 會長인
 李弘植 高大博物館長의 司會로 開催되어 事業內容, 會計 等の 報告에 이어 機關
 紙 「古文化」의 編輯方針, 相互協助問題 등이 討議되고 第七回(一九六九年度) 聯
 合展示는 釜山大學校博物館에서 열기로 決定하였다. 이날 午前에는 學生會館에
 서 金良善 鄭永鎬 兩教授의 講演이 있었으며 午後에는 建大主催 晚餐會가 「워커
 · 힐」에서 있었는데 兩教授의 講演論題는 다음과 같다.

- 金良善 · 韓國磨製石劍의 形式分類에 對하여
- 鄭永鎬 · 襄陽陳田寺址에 對하여 (石造物을 中心으로)

◎第十一回全國歷史學大會開催

韓國美術史學會主管으로 지난 六月 七, 八 兩日間 서울大學校에서 열렸는 바
 考古美術部門의 發表는 다음과 같다.

- 七日 共同發表(歷史學과 考古美術)
- 考古學과 關聯된 韓國古代史의 諸問題 金哲煥
- 東洋史研究와 金石·甲骨學 全海宗
- 美意識에 關한 比較史的 攷

—— 特別 人體造像問題를 中心으로 —— 廉殿鉉